

즉시 보도용

2025년 10월 20일

Contact: lamayornews@lacity.org

배스 시장과 로버트 가르시아 연방 하원의원, 미국 시민 및 이민자에 대한 불법 구금 및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연방 조사 촉구

로스앤젤레스 – 캐런 배스 시장은 오늘 연방 하원 감독개혁위원회 소속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 LA시의원들, 그리고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 대표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 요원들이 법원의 영장이나 합리적 근거 없이 미국 시민과 이민자를 불법적으로 체포-구금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 대한 의회 차원의 즉각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시작된 연방 단속 이후 170명 이상의 미국 시민이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에게 발로 차이거나, 전기충격기를 맞거나, 구타 당하는 등의 학대를 당하며 구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배스 시장은 “나는 언제나 로스앤젤레스를 지킬 것이다. 미국 시민인 앤젤리노들이 전기충격을 당하고, 질질 끌려가며, 불법적으로 구금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우려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은 심각한 불의에 대해 의회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며, 이를 지지해준 가르시아 의원께 감사드린다. 이는 로스앤젤레스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모든 도시의 모든 사람에 대한 공격이다. 미국 국민은 진실과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가르시아 하원의원은 “미국 시민들이 가면을 쓴 사람들에게 거리에서 끌려가 변호사나 전화 통화조차 허락되지 않은 채 구금되고 있다. 누구든 피부색이나 외모 때문에 자기 나라 정부에 의해 감옥에 갇힐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미국이 아니다.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토안보부(DHS)는 더 이상 우리의 시민적 자유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 그들의 행동은 위험적이고, 용납될 수 없으며, 철저히 반미적이다. 우리는 이 행정부가 책임을 질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유니시스 허난데즈 시의원은 “우리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선서했다. 지금 앤젤리노들이 정당한 절차도 없이 구타당하고 공포에 시달리며, 구금되고 있다.”며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며, 연방 이민 단속 기관이 저지를 모든 인권침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스 시장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이민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지난여름 연방정부가 무분별한 이민 단속을 시작하고 주방위군을 LA에 배치했을 때부터, 시는 이민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했다.

배스 시장은 이민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의 모든 부서가 시 자원의 이민 단속 사용을 금지하는 시 법을 준수하도록 프로토콜과 교육을 강화하고 대응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
- LAPD, 시장실 산하 이민자 담당부서, 이민자 권익 단체 및 지역 리더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신설, 현장 의견을 반영한 추가 지침 마련

- 연방정부에 불법 단속 관련 자료 제출 요구
- 각 부서의 이민자 담당관을 통해 이민자 가족을 위한 시 자원 접근성 확대

이 외에도 배스 시장은 다음과 같은 대응을 이끌었다.

- 맥아더 공원 인근 군사 작전식 단속으로 인해 대피한 [아이들을 직접 만나 위로](#)
- [보일하이츠](#), [웨스트레이크](#), [피코-유니언](#), [리틀도쿄](#)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지역 상인들과 면담
- 연방정부의 혼란을 틈탄 기물 훼손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Shine LA 캠페인](#) 주도
- [100여 개의 노동-경제-시민단체 및 이민자 권익단체](#)와 함께 이민 단속 중단 촉구

###